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지정된 고창농악이 연합회를 결성해 체계적인 보존·계승에 나선다.

대한민국 농악발전에 '앞장'

고창군 농악단 연합회 발대식 개최... 체계적인 보존·계승 나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지정된 고창농악이 연합회를 결성해 체계적인 보존·계승에 나선다.

14일 고창군과 고창군농악단연합회는 이날 오전 르네상스 웨딩홀에서 '고창군농악단 연합회 창립총회 및 발대식'을 열었다.

고창군농악단연합회는 그간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14개 읍면 농악단이 연합해 고창농악

을 대표하며 체계적인 조직을 갖췄다.

고창농악은 호남 우도농악에 속하며 영,무,장 농악의 계보를 잇고 있다. 영무장농악은 호남우도농악 중 영광, 무장(고창), 장성, 함평이 중심이 되어서 발달한 농악을 일컫는다.

호남우도농악은 아랫녘(목포지방)농악은 좀 느리고 웃녘(이리지방)으로 갈수록 점점 빨라져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중간지역인 영광,

고창지방은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아 간이 잘 맞다는 평을 얻고 있다.

이날 신종운 연합회장은 "연합회가 새롭게 결성된 만큼 회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단결해서 고창농악이 대한민국 농악을 선도해 나가자"고 밝혔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읍·면 농악단 활성화로 농악인으로서의 자부심이 높아지는 기회가 되고 농악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단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문화재 안내판' 103억원 투입 2500개 바로잡는다

문화재청이 '문화재 안내판 개선'을 추진한다. 관람객이 많이 찾는 고궁, 조선왕릉, 옛 수도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경주, 부여, 공주, 익산에 있는 주요 문화재 안내판 조사와 정비에 우선로 완료했다. 조선왕릉 명칭도 왕릉에 잠든 주인을 쉽게 알아보도록 개선했다.

지난해 대국민 참여 행사를 통해 잘못된 안

내판으로 접수된 의견은 총 355건이다. 이 중 어려운 단어나 문장이 들어간 안내판과 내용·번역 오류, 낱거나 훼손돼 잘 보이지 않는 안내판 등 실제 개선이 필요한 166곳은 올해 안내판 개선사업에 포함했다.

지자체 신청을 받아 선정된 전국 문화재 1392곳에 설치된 안내판 2500여개를 대상으로 한다.

국비 약 56억원을 포함한 총 103억원이 투입된다. 문화재 안내판은 1만건이 넘는다. 이번 정비사업에 포함하지 않은 안내판에 대해서도 문안, 배치, 규모,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평가해 개선해야 할 때 즉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재 안내판 정보를 담은 데이터베이스는 상반기에 마무리한다. 안내판에 문제가 있으면 국민이 문화재청 웹사이트에 개설된 오류 신고센터로 제보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춘다.

/뉴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한 장으로 누리는 문화혜택 '진안군 문화누리카드'

올해부터 연간 8만원 사용 가능

진안군은 6세 이상(2013.12.31.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해 삶의 질을 높여나가고 있다. 군은 해마다 문화누리카드 지원액을 확대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지난해보다 1만원 인상된 연간 8만원을 사용할 수 있다.

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홈페이지(www.mnuri.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는 도서·음반 구입, 영화·공연·전시 관람, 여행(숙박, 철도, 시외버스, 놀이공원 등), 스포츠(운동용품 구입, 프로스

포츠 관람 등) 분야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 16~17일 진행되는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 축제장 가맹점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진안군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은 현재 영화관, 축제장, 관광시설 등 총 32곳이다.

올해 문화누리카드 발급 재충전 기한은 11월 30일까지이며, 사용기간은 12월 31일까지로 연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된다. 기존 발급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재충전 후 사용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청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063-430-2324)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사)한국대학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2019 대학박물관 진흥지원사업'에 전주대학교박물관이 선정됐다.

지나온 독립운동의 100년을 기억하며

전주대박물관, 3·1운동 100주년 기념 특별전 지원사업 선정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사)한국대학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2019 대학박물관 진흥지원 사업'에 전주대학교박물관(관장 홍성덕)이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2019 대학박물관 진흥사업'은 대학박물관을 거점으로 지역민과 청소년들에게 문화복지 및 문화 교육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전시·교육프로그램이다.

한편 3·1운동 100주년 기념 특별전은 전주대 박물관에서 5월부터 진행된다. 3·1 운동 관련 성화 작품 7점과 3·1 운동 현장의 합성을 화폭에 담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등 미술작품 17점, '신흥학예지', '대한지지' 등 박물관 소장 유물 20여 점 등이 전시되어 일찍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 한남대박물관 소장 '1920년대 전주 지역 사진'도 전시되어 3·1운동 당시 전주 시가지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특별전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체험·행사도 함께 운영된다.

초·중·고등학생 및 다문화가정 등 문화취약계층을 위해 전주지역 3·1운동 유적지 답사, 기미독립선언문 탁본 체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주대학교박물관 박현수 학예연구사는 "지나온 독립운동의 100년을 기억하며, 전주 독립운동의 역사를 한층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평생교육 기관으로서 전 세대를 이어주는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2019 대한민국 대표축제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ww.firefly.or.kr

2년 연속 문화관광 대표축제 선정

무주 반딧불축제

Muju Firefly Festival

2019. **8.31** 토 ~ **9.8** 일



무주군